

SOCIAL OPTIMIZE COMPLEX
POSITIONING TECHNOLOGIES
METRICS TRENDS PERSONALIZE
BIGDATA GLOBAL
MEDIA DATA
OPPORTUNITIES STRATEGY
IMPROVE INFORMATION

빅터뉴스_테일리 브리핑

2019.09.29 뉴스 분석

2019.09.30

- ✓ 분석날짜 : 2019.09.29
- ✓ 분석대상 : 네이버 뉴스+댓글
- ✓ 분석툴 : 워드미터, 빅카인즈





오늘의 뉴스 키워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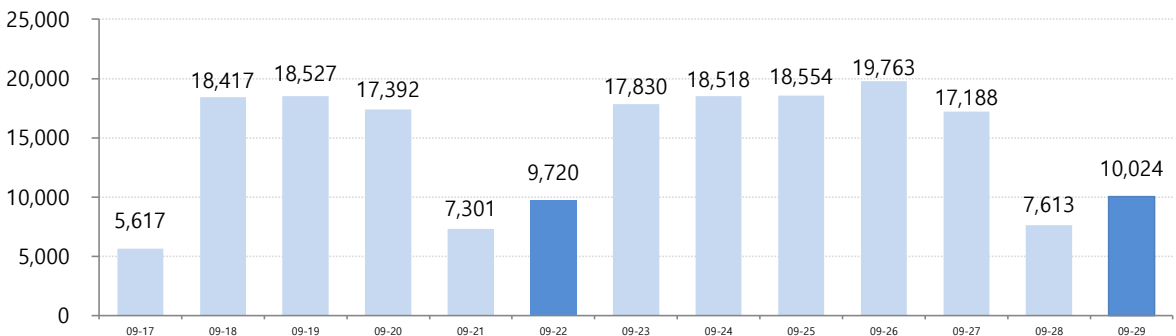
※ 빅카인즈 제공

	전체	정치	경제	사회	생활문화	세계	IT과학
1	검찰	검찰	중국	검찰	한국	중국	삼성전자
2	한국	민주당	대상	기상청	스웨덴	일본	한국
3	미국	조국	한국	대상	일본	미국	미국
4	대상	국회	미국	한반도	중국	한국	LG유플러스
5	중국	청와대	경기	국회	미국	홍콩	LG화학
6	경기	문재인	삼성전자	제주도	도움	트럼프	구글
7	일본	법무부	일본	서울대	대구	검찰	중국
8	국회	바른미래당	베트남	한국	대상	민주당	LG전자
9	민주당	한국당	인천	도움	지코	우크라이나	대상
10	조국	자유한국당	수도권	조국	마카오	국민당	SK이노베이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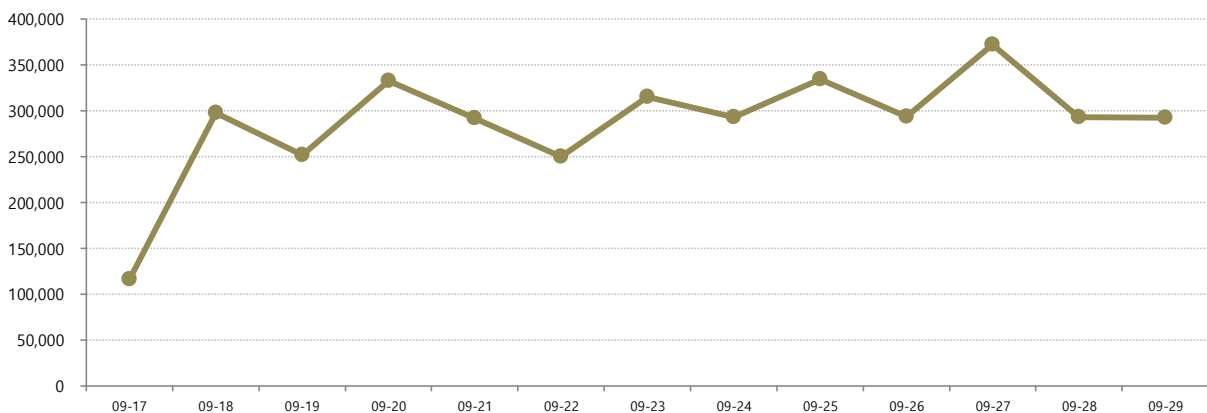
Part 1. 뉴스 현황

2019/09/29 뉴스 분석

네이버 뉴스 증감 현황



댓글수 추이





Part 2. 워드미터 랭킹뉴스

2019/09/29 뉴스 분석

가장 많이 본 기사 TOP5

언론사	섹션	제목	조회수
1 중앙일보	사회	태풍 '미탁' 2일 한반도 관통... '위험 반원' 호남·영남 초비상	347,407
2 뉴시스	사회	'국민의 명령' 돼버린 검찰개혁... 서초동 촛불 어디까지	299,568
3 부산일보	사회	유시민 "윤석열, 총칼 안 들었으나 위험적 쿠데타나 마찬가지"	250,452
4 이데일리	정치	文대통령 아드님 문준용의 거짓말 공개.. 하태경, 설전 뒤 예고	242,068
5 조선일보	정치	결심 서면 말하겠다-유승민, 제3신당 결행 초읽기 들어갔다	203,854

댓글 많은 기사 TOP5

언론사	섹션	제목	댓글수	추천
1 뉴시스	사회	'국민의 명령' 돼버린 검찰개혁... 서초동 촛불 어디까지	9,615	2,276
2 중앙일보	정치	박성중 "조국 집회에 200만명? 잠실야구장 80개 채운 규모"	8,310	3,061
3 중앙일보	정치	서초구청장 출신 박성중 "조국 시위대 최대 5만... 페르미 기법 적용"	8,199	4,967
4 조선일보	사회	이낙연 "여성만 둘 있는 집에서 11시간 동안...", 알고보니 아들에 변호사까지 6명	8,052	4,187
5 조선일보	사회	조국 딸 서울대 법대에서 해야 할 인턴은 집에서, 학생 가르쳐야 할 인턴은 엄마 연구실에서 했다	7,544	5,381

'좋아요' 많은 기사 TOP5

언론사	섹션	제목	감성반응	좋아요	비율	추천
1 조선일보	사회	윤석열 "검찰개혁,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다"	22,073	21,145	95.8%	4,356
2 조선일보	정치	참여연대 집행위원장, 조국 지지 교수, 변호사 등 향해 "위선자들... 구역질난다"	19,507	18,580	95.2%	4,367
3 중앙일보	정치	서초구청장 출신 박성중 "조국 시위대 최대 5만... 페르미 기법 적용"	19,751	18,085	91.6%	4,967
4 중앙일보	사회	검찰 이미 목 내놨다, 압박하면 더 팔 것... 조국 수사의 역설	15,702	14,858	94.6%	3,287
5 중앙일보	정치	'조국 사태' 참여연대 간부 "위선자, 구역질, 지저분한 X들"	14,760	14,204	96.2%	3,571

'화나요' 많은 기사 TOP5

언론사	섹션	제목	표정	화나요	비율	추천
1 조선일보	사회	조국 딸 서울대 법대에서 해야 할 인턴은 집에서, 학생 가르쳐야 할 인턴은 엄마 연구실에서 했다	22,694	22,389	98.7%	5,381
2 조선일보	사회	이낙연 "여성만 둘 있는 집에서 11시간 동안...", 알고보니 아들에 변호사까지 6명	19,978	19,695	98.6%	4,187
3 부산일보	사회	유시민 "윤석열, 총칼 안 들었으나 위험적 쿠데타나 마찬가지"	16,979	14,945	88.0%	1,739
4 뉴시스	사회	'국민의 명령' 돼버린 검찰개혁... 서초동 촛불 어디까지	18,570	14,626	78.8%	2,276
5 중앙일보	사회	"조국 자택 압수수색 당시 여성 5명... 아들도 있었다"	14,832	14,542	98.0%	3,454

공감 많은 댓글 TOP5

언론사	섹션	기사제목	댓글	공감		비공감	
				갯수	비율	갯수	비율
1 조선일보	사회	윤석열, 與 친문 물려와 "조국 수호" 외치자 특별메시지로 되받았다	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최선을 다하고 조국님 게이트 수사는 법대로 엄정하게 하면 된다(...)	20,650	91.5%	1,924	8.5%
2 조선일보	사회	이낙연 "여성만 둘 있는 집에서 11시간 동안...", 알고보니 아들에 변호사까지 6명	예휴... 이낙연도 결국 뻔뻔한 좌파 정신병자였구만 반대편 적폐 수사할때는 여자고 남자(...)	19,123	96.1%	772	3.9%
3 조선일보	사회	조국 딸 서울대 법대에서 해야 할 인턴은 집에서, 학생 가르쳐야 할 인턴은 엄마 연구실에서 했다	기가 막하다. 궤변이라 해야하나? 집에서 연구실에서? 할 말이 없다.	16,922	96.5%	614	3.5%
4 중앙일보	정치	서초구청장 출신 박성중 "조국 시위대 최대 5만... 페르미 기법 적용"	진작 이런 글이 나왔어야지... 기자들 전문가들한테 분석 의뢰하면 바로 나왔을텐데 다 선(...)	14,000	86.7%	2,150	13.3%
5 부산일보	사회	유시민 "윤석열, 총칼 안 들었으나 위험적 쿠데타나 마찬가지"	너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딴 소리	13,676	90.2%	1,480	9.8%



Part 2. 워드미터 랭킹뉴스

2019/09/29 뉴스 분석

정치·사회 섹션 댓글 많은 기사 TOP5

언론사	제목	댓글수	좋아요		하나요		추천
			갯수	비율	갯수	비율	
1 뉴시스	'국민의 명령' 태버린 검찰개혁...서초동 촛불 어디까지 축제하는데 데모꾼들이 손가락 잇었네 ㅋㅋㅋ ▶13566 ㅋㅋㅋ 이봐요 ㅋㅋㅋ 기가 막혀서 ㅋㅋ 나 어제 서리풀축제 다녀온 사람인데요 ㅋㅋ이윤희기자님 현장에 와보고 쓴 기사 맞아요??왔으면 거기 다 서리풀축제참 가자인데 봤을텐데?? (...) ▶11549	9,615	3,795	20.4%	14,626	78.8%	2,276
2 중앙일보	박성중 "조국 집회에 200만명? 잠실야구장 80개 채운 규모" 조국 문재인 민주당...공통점거짓말과 뻔뻔함.....그들이 지금까지 국민을 상대로 사기질을 이제 국민이 끝낼때가 되었다 ▶13195 집회신고된 구역의 면적이 나와있고.. 인권개념을 살짝 물어넣어 가로세로 1m안에 2명에서 2.5명정도 넣으면 3-4만명이고.. 타이트하게 넣어 3-4명이면 5만명임. 200 만명이 될려면 가로1미터 세로1미터의 공간안에 150-200명을 쑤셔넣어야 하는데 (...) ▶7508	8,310	11,541	81.9%	2,431	17.3%	3,061
3 중앙일보	서초구청장 출신 박성중 "조국 시위대 최대 5만...페르미 기법 적용" 진작 이런 글이 나와야하지... 기자들 전문가들한테 분석 의뢰하면 바로 나왔을텐 데 다 선동하고 이제사 나오네. ▶14000 미시간 스타디움 10만 관중. 바르셀로나 캄푸 누 9만 관중. 퀸 왕블리 공연 10만 관중. 교황 방문 당시 광화문에 17만명 인파. 이 사진과 서초동 촛불 집회 사진과 비교해봐라. 참나 200만명? 예라이 뺄도 어지간히 쳐야지(...) ▶9012	8,199	18,085	91.6%	1,558	7.9%	4,967
4 조선일보	이낙연 "여성만 둘 있는 집에서 11시간 동안...", 알고보니 아들에 변호사까지 6명 예휴..이낙연도 결국 뻔뻔한 좌파 정신병자였구만 반대편 적폐 수사할때는 여자가 남자고간에 아주 사생활다털고 난리를쳤으면서 자기들 수사하니까 저탄식으로나 오네 ㅋㅋㅋㅋㅋ와 대단들하다 참 ▶19123 국무총리란 사람이 가짜 뉴스를 배포하네. ▶10548	8,052	146	0.7%	19,695	98.6%	4,187
5 조선일보	조국 딸 서울대 법대에서 해야 할 인턴은 집에서, 학생 가르쳐야 할 인턴은 엄마 연구실에서 했다 기가 막히다.궤변이라 해야하나? 집에서?연구실에서? 할 말이 없다. ▶16922 결국 모든걸 집구석과 식구들끼리했다는거네...기생충 맞네 꺾 ▶11824	7,544	110	0.5%	22,389	98.7%	5,381

경제 섹션 댓글 많은 기사 TOP5

언론사	제목	댓글수	좋아요		하나요		추천
			갯수	비율	갯수	비율	
1 중앙일보	자율주행차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섹스가 더러워? 이들은 더러운 행위로 태어난 저주받은 자식들이니? 어처구니가 없네 유튜브레반 새기들 ㅋㅋㅋㅋㅋㅋ ▶3546 뜨거운 날을 보낼 수 있겠구만. 폭발하는 엔진과 함께. ▶346	1,257	494	20.1%	1,752	71.3%	232
2 조선일보	"최악의 위기가 온다"...생존전략 모색 동분서주하는 재계 총수들 국가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인데 광장으로 민초들을 내몰고, 정권유지에만 생사를 걸고있는 문정권! 전대미문의 최악의 정권이다 ▶5250 파란집에 있으면서 해외 여행이나 다니고 머리에는 오로지 북만 짝차 있는 멍청한 인간은 우리경제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단다. 다들 죽겠다 하는데... ▶2712	962	65	2.1%	2,908	93.8%	646
3 한국경제	반도체 빼고...韓 전자·차·화학, 5년 뒤 중에 다 따라 잡힌다 정치가 썩어 나라가 망하는 중.. 나라 발전엔 관심없고 권력투쟁만 하는 정권은 반 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. ▶1398 중국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,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용 함께 하겠다. 문 재 인 ▶724	716	54	4.5%	1,072	89.9%	285
4 한국경제	노조 무서워 '공기업 직무급' 포기한 정부 조 까튼 좌빨 문재인조국인 정권 색희들.. ▶1340 노조는 무서우면서 사법개혁은 만만하나? ▶1263	682	42	1.7%	2,344	96.8%	532
5 매일경제	주가폭락에...한국부자 금융자산 5년만에 줄었다 부자들도 피해갈 수 없는 Moon재앙의 손길... 평등하긴 하네 ㅋㅋㅋ 대한민국 국 민이라면 대가리 다 깨부수는 그 북괴수석대변인 ▶2457 부동산도. 주식도. 현금도. 금도. 달러도. 뭐하나 좋아진것이 없다. 그리고 뭔가 정 부차원에서 통제하려는것이 너무 많아졌다. 시장을 정부가 개입하다보면 꼭 탈이 나는데... 걱정스럽다(...) ▶1580	675	80	6.1%	1,205	91.6%	266